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6차)

개최일시	2018. 5. 25(금) 11:00~12:15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2명)	김상택(기획처장), 김윤경(재무처부처장), 김혜린(동아리연합회 회장), 도재형(총무처장), 신혜슬(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안현주(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이공주복(교무처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정한경(학부 총부학생회장), 차안나(학부 총학생회장), 최성희(학생처장), 최혜련(예산팀장)		
불참자 (1명)	문지영(대학원 학생회장)		
안건	2018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의결		
내용	<p>■ 개회</p> <p>1.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13인의 위원 중 12인이 참석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다.</li> </ul> <p>2. 구성원 관련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처장은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재무처장을 겸임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며 재무처부처장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었음을 말하다. 의료원에서 추경예산에 대해 발제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함을 말하다.</li> <li>- 총학생회장은 의료원 관계자들은 참관인 성격으로 온 것인지 질의하다.</li> <li>- 학생처장은 발제를 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며 참관인 성격이 아니라고 답하다.</li> <li>- 교무처장은 안건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li> <li>- 기획처장은 긴급하게 의료원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 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인 만큼 의료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li> <li>- 총학생회장은 학생 위원들도 일정을 취소하고 회의에 참석함을 말하다.</li> <li>- 총부학생회장은 의료원 성원의 경우 의결권이 없는 회의 성원이라 회의 시작부터 회의 장내에 계시는 것에 대해 참관인으로서 참석하시는 것인지 질의함을 말하다.</li> </ul>		

- 총무처장은 기존에 의료원 관련 논의를 진행할 때 의료원에서 발제를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며, 급하게 진행된 회의임을 말한다.

-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생들과 직결된 회의체이기 때문에 구조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다.

- 총무처장은 위원들의 일정을 고려하여 첫 번째로 병원 추경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학생위원들도 일정을 빼고 참석한 것임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참관인 허용을 계속 요구해왔지만 거절된 바 있음을 말한다. 이에 의료원 관계자들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다.

- 의료원 관계자들은 일반적인 회의 진행 과정에는 장외에 있고, 의료원 관련 발제를 진행할 때 참석할 것을 결정하다.

#### ■ 회의내용

##### 1. 위원장 선출

- 재무처부처장은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 총무처장은 가능하긴 하나 3시에 일정이 있음을 언급하며 교무처장보다는 일정이 뒤에 있으므로 괜찮다고 답하다.

- 총학생회장은 회의 시작 전에 재무처부처장이 교무처장에게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것을 언급하며 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내용은 공식적인 회의체 내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임을 말한다. 더불어 위원장과 관련하여 총무처장을 추천하고자 한다면 총무처장 외의 위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함을 말한다.

- 재무처부처장은 다른 위원들에게 양허를 구한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 선출에 대한 큰 이견이 없어 총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다.

- 위원장은 회의록 작성에 대해 학교가 작성할 차례인지 묻다. 이에 대해 학생위원들이 회의록을 학생 위원이 작성할 차례라고 답하자 금일까지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 재무처부처장은 법적으로 회의록은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함을 언급하다.

- 총학생회장은 회의록이 회의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며, 회의가 끝나자마자 하루 안에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하다.

- 위원장은 의료원 상황이 시급하여 회의록이 빨리 작성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최종 게시일 까지 주말이 2번 있고 창립기념일까지 있는 상황이라 늦어도 주말까지는 초안이 작성되어야 함을 말한다.

- 예산팀장은 법적 기한이 있음을 말하고 되도록 빠르게 초안을 작성할 것을 요청하며, 다른 위원들도 가능한 신속히 회의록을 확인할 것임을 말한다.

- 위원장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완료되었으니 의료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2. 2018학년도 부속병원 추경예산(안) 심의

- 의료원 관계자들이 회의장에 참석하고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의료원 참석자: 병원 기획조정실장 임기환, 병원 기획예산과장 이병무)

- 병원 기획예산과장(이하 '기획예산과장')이 부속병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발제를 진행한다. 의료수익이 감소할 것을 반영 및 법인의 긴급차입금 180억 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을 작성함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이 의료수익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 이미 발생한 것인지,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3월, 4월의 의료수익을 기준으로 수정 반영하였음을 설명하다.

- 외부위원은 3월, 4월 2개월 평균을 반영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수납제도의 변경(선수납에서 후수납)으로 인해 2월 수입이 다소 줄어들었으며 3월, 4월은 늘어난 바 있음을 말한다.

- 외부위원은 3월, 4월은 작년에 비해 수익이 몇 퍼센트 정도 줄었는지 질의하고 기획예산과장은 4월을 기준으로 작년은 25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198억 원 정도라고 답하며 현재 수익이 올라가는 추세라고 답하다.

- 학생처장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되지 않은 것도 수익이 줄어드는 것에 반영되는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예산과장은 그렇다고 답하다.

- 위원장은 마곡병원이 언제 개원 예정인지 질의하고 병원 기획조정실장(이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1, 2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답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설명을 진행한다. 외래수익 및 입원수익 등의 진료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수입부가 감소함을 설명하며 법인에 180억 원 긴급 차입금을 요청하여 운영비, 시설개선비 등에 사용 예정임을 설명하다. 더불어 인건비, 재료비, 의료분쟁비용, 관리운영비 등 지출부를 축소 편성함을 설명하다.

- 기획처장은 수입이 감소하면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예산과장은 그렇다고 답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신생아 중환자실 사태와 관련하여 최대한 본교에 피해가 없도록 대응하고 있음을 말하다.

- 재무처부처장은 대금결제조건과 관련하여 2개월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올해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2개월 연장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계속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답하다.

- 재무처부처장은 법인 차입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상황계획을 묻다.

- 기획예산과장은 급여 등을 지급할 상황이 되지 않아 긴급히 요청한 것임을 말하다.

- 학생처장은 의료분쟁비용이 23.4억 원이라고 되어있는 부분과 신생아실 관련 비용이 5억 원인 점을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분쟁비용은 피해자분들과의 보상협의비용이며, 5억 원은 변호사 관련 비용임을 말하다.

- 총학생회장은 분쟁비용이 얼마든지 추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했다고 답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 소송이 이뤄질 수 있음을 말하다.

- 총학생회장은 대금결제 조건 2개월 연장에 대하여 당장 지출 비용은 감소하지만 결국에는 빛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을 언급하다. 인건비와 관련하여 대학 평의원회에서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현재의 대책은 차후 의료원의 수익이 증가할 것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임시방편의 대책을 세운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하다.

- 위원장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현재의 추경예산은 앞으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편성한 것임을 언급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의료수익이 차츰 나아지고 있으며 현재 사태를 극복하고 의료수익을 회복할 방안에 대해 고민 중임을 답하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탈락으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것을 언급하며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익이 올라갈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짰음을 말하다.

- 학생처장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과 별개로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스크랜튼 감염 교육센터 사업비를 증가하고 NICU를 재오픈하는 것 등을 언급하며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은 재료비를 111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묻다. 이번 사태는 약품이나 진료재료비를 절약하려다가 생긴 사고일 수도 있는데, 재료비를 삭감한다면 의료사고에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제제기하다.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질의하고 감염센터 설립은 장기적인 대책이지 단기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말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센터설립은 10년 프로젝트라고 답하다. 또한 환자 감소분에 비하면 진료재료비가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님을 설명하다. 병실 진료 수익이 감소하면 재료비 또한 감소함을 설명하다.

- 학생처장은 법인 차입금 180억 원은 큰 금액이며 의료원에서 현재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10년 프로젝트인 감염센터라고 답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다. 단기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단기적인 대책은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하다. 병원의 효율화를 위해 진료과 간담회 등의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임을 호소하다.

- 총무처장은 마곡병원이 세워지면 목동병원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구성원들의 고민이 있음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다.

- 총학생회장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고자 한다는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은 이해되지만 재료비, 인건비 등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인력을 증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하다. 더불어 지출부의 교육예산축소가 학생들과 관련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교육예산 축소의 경우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을 절감한 것이며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스크랜튼 감염교육 연구센터 연구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다. 병원에서는 이미지 제고를 통해 개선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하다. 더불어 보구여관과 관련하여 어디서 예산이 증가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감염교육 연구센터의 경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색한 방안임을 말하며 관련된 몇 가지 해결책을 수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하고자 함을 말하다. 환자를 직접 접하는 직원들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진행할 정도로 감염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하다. 보구여관의 경우 내부 소통의 문제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나 소통상의 문제로 포함되지 않아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말하다.

- 외부전문가 위원은 한 달 만에 추경예산을 다시 심의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점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 기획예산과장은 당시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예산수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이었으며 데이터를 준비하여 수정반영한 추경예산임을 말하다.

- 외부위원은 당시에는 예산에 대해 예측을 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음을 말하다.

- 위원장은 추가 질의가 없을 경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목동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서 추경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언급하다. 현재 마곡 병원에 대한 건축을 진행하고 있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자 하는지 질의하다.

- 기획조정실장은 최선을 다해 병실을 운영하고자 하며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병원을 벤치마킹하여 대응하고자 함을 답하다. 그 때도 추가 건물을 세우는 것을 보류했으나 현재 마곡병원의 경우 70% 이상 진전된 상황에서 멈추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하다.

- 총학생회장은 의료원 법인 차입금을 180억 원에 대하여 언급하며 법정부담전입금을 확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다. 더불어 의료원 사정으로 인해 인권센터의 예산 및 인력을 확충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와 같

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하다.

- 위원장은 학생 관련 외 항목에 대한 예산 집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생 교육 관련 항목에서는 큰 변화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답하다.

- 총학생회장은 예산 확충 요청 시 어려운 이유로 의료원 상황을 언급해서 학생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다.

- 기획처장은 현재 우리 학교의 법인전입금 확충률이 타대학 대비 높은 순위임을 말하다.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상태를 지속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법인이 조금 더 증액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을 말하다.

- 총학생회장은 우리학교 법인전입금이 다른 학교보다 높다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되지는 못한다고 말하다. 현재 본교는 법적으로 지불하도록 강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법인전입금 확충률이 60.7% 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다.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도 지불해야 할 것임을 말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법인에서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언제, 무슨 내용에 대해 약속을 받은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증액을 약속한 상황임을 답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어느 자료인지 질의하고 이에 대해 기획처장은 대학 역량 평가 자료임을 답하다.

- 위원장은 병원 관계자분들에게 질문이 없으면 병원 관계자 분들 없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더불어 교직원 위원들의 일정 관계 상 회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요청하며 학생위원들의 결석에 대해 공결서가 발급이 되는지 질의하다.

- 재무처부처장은 요청하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대학원 학생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인지 질의하다.

- 재무처부처장은 외부 강의로 인해 불참했음을 설명하다.

- 총부학생회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생기면 명패를 두고 자리를 공식으로 두는데 본 회의에서는 대학원 학생회장의 명패가 없고 의료원 참석자들의 명패가 있어 위원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것인지 확인차 질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회의를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다.

- 위원장은 병원 추경예산에 대해 의결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비민주적 구조와 관련하여 학생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요청한 바 있는데 요구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히다.

- 교무처장은 의결을 먼저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학생처장은 매번 똑같은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학교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공식적인 방식으로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교무처장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은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기준을 만들 것을 논의했지만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병원 추경예산의 건으로 힘들게 일정을 맞춘 것이니 의결을 먼저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총학생회장은 병원 추경예산이 급한 안건임을 이해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요구사항 또한 중요한 사항임을 말한다.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의체가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뿐임을 언급하며 이러한 회의체 내에서조차 학생위원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적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다. 더불어 학생위원의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학생위원들은 심의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현재는 진전된 방향으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며 가능하다면 학기가 끝난 후 재무처와 논의를 해서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병원 관련 안건은 시급한 것이며 학교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있으므로 의결을 진행하고자 함을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논의를 재무처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에 대한 것은 안건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논의만 진행되었음을 언급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 관련 논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충분한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 학생처장은 2018년도 등심위 초반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길게 진행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회의록에도 양측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음을 말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한 논의는 회의 장내에서 진행하지만 회의를 주관하는 부처는 재무처이기 때문에 재무처를 통해 학교의 공식적인 입장정리 및 답변이 이루어진 후에 이를 기반으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재무처가 급한 업무를 처리하고 여유가 생길 때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회의 전 단계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말한다.

- 학생처장은 예산안을 작성할 때 미리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자는 것인지 질의하고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하다.

- 총학생회장은 학교 부처에서 논의한 결과를 학생위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민주성에 대한 논의는 구성원들이 여유가 있을 때로 미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 위원장은 양해를 구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심의를 진행하지만 그 전에 어떤 안건을 만들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가 하지 않으면 학생처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달리 하자는 것과 참관인을 허용하자는 것이 학생들의 가장 큰 두 가지 요구라고 알고 있다고 말한다. 이 두 가지 요구의 성격 상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 학생처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논의를 위원회에서 이미 길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그에 대한 주무 부처의 입장 정리가 있어야 이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길게 논의한 것은 맞으나 이전에도 계속해서 안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음을 설명하다. 일반적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안건을 다루는 사이사이에 논의를 진행했으며 정식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안건 상정 제안을 한 것은 그동안 논의했던 것들에 대해 정식으로 다루자는 제안을 한 것임을 설명하다.

- 위원장은 위원들이 양해한다면 관련 사항에 대해 재무처에서 정리할 것을 요청하며 시간적인 제약을 고려해 병원 추경 예산에 대해 의결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다.

	<p>- 총학생회장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후 학생위원 5인이 퇴장하다.</p> <p>- 위원장은 추가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부속병원 추경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위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무처부처장, 예산팀장, 외부전문가 위원 총 7명이 찬성하여 부속병원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의결사항</p> <p>- '18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p> </div> <p>■ 폐회</p> <p>- 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p>																																																
<p>확 인</p>	<p>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2018년 5월 29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직 위</th> <th style="width: 15%;">성 명</th> <th style="width: 15%;">서 명</th> <th style="width: 10%;">직 위</th> <th style="width: 15%;">성 명</th> <th style="width: 15%;">서 명</th> </tr> </thead> <tbody> <tr> <td>위원장</td> <td>도재형</td> <td><i>도재형</i></td> <td>위 원</td> <td>이공주복</td> <td><i>이공주복</i></td> </tr> <tr> <td>위 원</td> <td>김상택</td> <td><i>김상택</i></td> <td>위 원</td> <td>이상은</td> <td><i>이상은</i></td> </tr> <tr> <td>위 원</td> <td>김윤경</td> <td><i>김윤경</i></td> <td>위 원</td> <td>정한경</td> <td><i>정한경</i></td> </tr> <tr> <td>위 원</td> <td>김혜린</td> <td><i>김혜린</i></td> <td>위 원</td> <td>차안나</td> <td><i>차안나</i></td> </tr> <tr> <td>위 원</td> <td>문지영</td> <td>불 참</td> <td>위 원</td> <td>최성희</td> <td><i>최성희</i></td> </tr> <tr> <td>위 원</td> <td>신혜슬</td> <td><i>신혜슬</i></td> <td>위 원</td> <td>최혜련</td> <td><i>최혜련</i></td> </tr> <tr> <td>위 원</td> <td>안현주</td> <td><i>안현주</i></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도재형	<i>도재형</i>	위 원	이공주복	<i>이공주복</i>	위 원	김상택	<i>김상택</i>	위 원	이상은	<i>이상은</i>	위 원	김윤경	<i>김윤경</i>	위 원	정한경	<i>정한경</i>	위 원	김혜린	<i>김혜린</i>	위 원	차안나	<i>차안나</i>	위 원	문지영	불 참	위 원	최성희	<i>최성희</i>	위 원	신혜슬	<i>신혜슬</i>	위 원	최혜련	<i>최혜련</i>	위 원	안현주	<i>안현주</i>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도재형	<i>도재형</i>	위 원	이공주복	<i>이공주복</i>																																												
위 원	김상택	<i>김상택</i>	위 원	이상은	<i>이상은</i>																																												
위 원	김윤경	<i>김윤경</i>	위 원	정한경	<i>정한경</i>																																												
위 원	김혜린	<i>김혜린</i>	위 원	차안나	<i>차안나</i>																																												
위 원	문지영	불 참	위 원	최성희	<i>최성희</i>																																												
위 원	신혜슬	<i>신혜슬</i>	위 원	최혜련	<i>최혜련</i>																																												
위 원	안현주	<i>안현주</i>																																															
<p>작 성 자</p>	<p>속기록 작성: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우민주 (<i>우민주</i>)</p> <p>회의록 작성: 총학생회장 차안나 (<i>차안나</i>) / 총부학생회장 정한경 (<i>정한경</i>)</p>																																																